

大學의 社會的 責務

李 相 信

(高麗大 西洋史學科)

大學과 大學人, 그리고 學問의 社會적 참여는 歷史的으로 볼 때, 지배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며 실용적·도구적으로 참여하는 세력과 현실 비판적·보편사 지향적 세력이 常存하여 왔다. 前者의 참여가 당연한 책무로 美化되는 반면, 後者は 本分을 벗어나 社會의 禁忌 영역에로 나가는 행위로 指탄·매도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가 얼마나 守舊的·支配論理的 發상인가 하는 것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1

일반적으로 大學은 政治적·社會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관여를 금기토까지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思考는 과연 正當한 것인가? 그러한 사고가 형성된 본래의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적 이해는 어떠한 범위와 조건에서 비로소 正當할 수 있는가?

‘大學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라는 정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의이다. 이때 진리란 우주와 자연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연 법칙들과 인간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 많은 역사적 법칙들을 지칭하며, 탐구한다는 것은 합리적·학문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각 영역에서의 진리를 탐구하는 각 분야의 학문들이 형성되고 그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이 개발됨으로

써 대학은 학문 연구 기관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본질적인 과제는 眞理 탐구이다. 그런데 이 과제는 결코 어떤 한 시기에 완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자연에서의 진리들은 아직도 규명중에 있으며, 인간의 역사 생활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결코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법칙과 인간성의 원리들은 계속해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실로 진리 탐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결코 완수될 수 없는 성격의 작업이며, 그러므로 대학은 한 국가의 또는 한 종파의 영역과 신조에 속해 있으면서도 국가와 교회의 업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학의 과제가 바로 그러한 성격의 막중한 것이므로 오로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 온 것이다. 대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12~13세기 이래로 대학도 역시 스스로가 독자성과 자주성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고수해 왔던 것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에서였다. 당시의 현실적 지배 세력인 帝權과 정신적 지배 세력인 敎權이 대학을 보호하면서 그 독자성과 자주성을 인정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였다.

서양에서 大學이 12~13 세기의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그만큼 '조건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십자군 운동을 통해 교토가 발달하고 상업이 왕성해졌으며, 이에 화폐 경제와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갔고 아울러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 계급이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들에 관한 설명만으로써는 부족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른바 르네상스 시기의 人文主義라는 비중세적인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大學 形成의 자극제로 될 수는 있어도 근본 동기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또한 국가와 교회가 현실의 변화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도 부족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불과하다.

대학은 실제로 그러한 조건들이나 이유들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大學 形成의 일차적이고도 가장 본질적인 동기는 그룬트만(Grundmann)이 언급했듯이 知識에의 욕구와 認識에의 의지였다. 이 점은 대학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성당과 수도원에 부속 학교들이 있었지만, 이것들로부터 대학이 성장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떠한 지위나 임무도 바라지 않으면서 지식을 토론하고 전수시키고자 했던 학자들과 이들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모여든 학생들에 의해 이들 모두의 연합체라는 의미의 Univertas(오늘날의 대학)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요컨대 인간의 자발적·본래적인 충동으로서의 지식욕과 인식 의지가 근본 동기였다.

조직 과정은 지역에 따라서 달랐다. 어느 경우에는 학생들이 먼저, 또 다른 경우에는 교사들이 먼저 조합을 구성하여 교사들을 초빙하거나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 Univertas였다. 대학으로서의 이 기관은 국가

나 교회의 기관이 아니라 조합적 자치 체제 창를 출했었다. 바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다른 교육 기관들과는 달리 자체 내에서 학장과 총장을 선임하고 교과과정을 마련하며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은 국가와 교회로부터 제약과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치 기구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모든 신분과 계층의 출신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며, 민족과 국적도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곳은 냉엄한 법칙과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외부로부터, 즉 국가나 교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을 때 학생 조합과 교수 조합은 일치 단결하여 강의 중단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와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 연구 활동을 위해 독자성과 자주성을 주장했고,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겉치적으로 이를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근세초부터는 외부로부터의 주도권에 의해 대학이 설립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즉,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가 양분되어 갔고 또한 마야흐로 근대 국가들이 절대주의 체제를 갖추어 갔던 16~17세기에는 국가와 교회가 자신들의 의도와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가와 교회가 설립자이거나 운영자이면서도 대학의 독자성과 자주성의 원칙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학의 학문 연구 결과가 자신들에 현실적으로 유용하다는 점과 그러한 학문 연구는 무엇보다도 대학에 독자성과 자주성이 확보될 때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의 대학 역사에서 보면 대학이 박해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순탄하게 걸어 온 것은 아니지만, 그 기원과 본질에 있어서 대학은 독자적인 사고와 연구를 하면서 학문의 전파를 목표로 삼아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은 더욱더 독자성을 확고히 지켜 나갔던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대학은 현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대학이 자체의 막중한 본

질적 과제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즉, 그 말은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일 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배려와 요청일 뿐 결코 억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은 역사적으로 보면,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현실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으며,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또는 정신 세계의 진로를 새로이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참여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세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회 회의나 귀족 회의 또는 三部會議에 대표를 파견했던가 하면 교황권이 아비뇽계, 로마계, 피사계의 3 교황으로 대분열에 빠졌을 때 이를 중식시켰던 콘스탄츠 大宗教會議(1414~1417)에는 파리대학과 하이델베르크대학, 그리고 폴란드의 크라카우대학의 교수들이 각국의 국왕 대표들 및 주교들과 함께 참석했었다. 이 대종교 회의는 종교 회합인 동시에 정치 회합이었으므로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역할은 신학적·교회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은 당시의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국왕과 교황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충돌을 해결하는 데 항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중요한 종교 회의 때마다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들은 대학에서 온 교수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중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교회가 부패와 무기력으로 지도력을 상실해 갔을 때, 옥스포드대학의 위클리프(Wycliff)로부터 시작된 개혁 운동이 프라하대학으로 전과되어 후스(Huss)의 개혁 운동을 야기시켰고, 드디어 비텐베르크(Wittenberg)대학의 루터(Luther)에 의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성립될 수 있었던 일이다. 실로 신학자이자 교수로서의 이들이 교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도그마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감행함으로써 종교 개혁은 다음 아닌 바로 대학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과 대학인들의 이러한 현실 참여는 그들이 자연 법칙과 특히 인간 생활에서의 역사 법칙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파악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 개혁에서처럼 정신 세계를 새로이 형성시키고 그 진로를 교정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실로 대학과 대학인은 정신 세계의 담당자로서 문명과 문화의 방향을 교정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로써 정치와 사회에 기여해 왔던 것이다.

대학의 文明史的 중요성이 이리하거늘 이에 합당한 역할이 대학에 분담되어야 하고 또한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상적으로 놀랍게도 이미 13세기부터 대두되었다. 다음 아나라 1288년에 쾰른(Köln) 성당의 평의원이었던 알렉산더 폰 로에(Alexander von Roe)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학문 연구 기관(Studium)이 기독교 세계를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敎皇權(Sacerdotium)과 皇帝權(Imperium)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당시의 중세 세계는 바로 이 두 힘, 즉 교황권과 황제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힘, 즉 학문 연구 기관의 힘이 또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는 이 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체류한 바 있는 파리대학의 역할에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당시의 유럽인들은 독일은 皇帝, 이탈리아는 敎皇, 그리고 프랑스는 學問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파리대학의 학문적 권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었으며, 결국 프랑스로 하여금 황제권과 교황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응하는 국가로서 행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 위에서 알렉산더 폰 로에는 3개의 힘이 기독교 세계를 지도해 나가는 것은 神의 뜻이며, 카알 大帝(Karl der Große) 이래로 각 힘은 각 민족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서 구현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즉, 독일에서는 귀족들에게 황제권을,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황권을 지키게 하고 프랑스에서는 성직자들에게 학문 연구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3개의 현실 세력을 파악하는 現世的 三位一體思想이라고 지칭될 수 있겠다.

학문 연구의 중요성이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에는 널리 이해되고 있었다. 즉, 학문 연구는 교황권·황제권과 함께 제3의 '보편적 힘(Universalmacht)'으로서 다른 2개의 어느 것에도 예측되지 않으며, 비록 서로 의지하지만 근원적인 '지식에 대한 사랑에서' 그들과 함께 독자적이며 동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의 알렉산더 폰 로에뿐만 아니라 그와 同時代人인 이탈리아의 톨레메우스 폰 루카(Tolemeus von Lucca)는 모든 군주 국가에서는 王權, 敬神, 학교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고, 프랑스의 빌헬름 폰 낭기스(Wilhelm von Nanngis)는 프랑스 국왕은 기사, 신앙, 지혜를 다른 어느 국왕보다 3 배로 갖추었으므로 가장 명민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역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모든 중요한 나라들에서는 학문 연구의 힘이 다른 2개의 힘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리고 국가 권력과 교회 신앙과 학문의 전당인 大學은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現世的 三位一體思想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상은 3개의 힘들이 인간 생활에서는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힘은 독자적이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국가를 단위로 하고 있는 한 민족 생활이 다른 민족에 뒤지게 된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어느 한 힘이 다른 힘에 봉사적인 역할만을 하는 형식으로 예측되는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의 중세 세계에서는 神學이 우세한 힘이었고, 따라서 학문 연구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종교에 예측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저 삼위 일체 사상에는 그러한 예측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만일 당시에 대학이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보다 더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다면, 대학은 다른 힘들과의 동등한 몫의 역할이나 그들과의 결합을 주장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조정권과 견제권까지도 요구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도 부당한 요구일 수 없다. 그러나 중세 현실에서는 교황권이 막강했었다. 그러므로 대학이 더 이상의 요구를 제시할 수는 없었고, 단지 다른 힘들과의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표현되는 정도가 전부였었다.

敎權은 근세의 시작과 함께 종교 개혁을 통한 자체의 양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막강한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여기에는 학문의 발달과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도그마적 敎理와 신앙이 힘을 잃어가게 되었던 사실도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고 대학과 학문의 힘이 보다 더 강력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17세기 이래로는 근세 국가 체제가 형성되어 갔고 그 절대주의적 권력이 이제는 종교와 학문의 힘을 압도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우위성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정치 후진국에서는 그 힘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가 권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대학과 학문의 힘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普遍史의 이념을 위해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국제 정치 관계는 그것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

요컨대 대학과 학문이 근세 이후로는 정치 권력에 예측되어 가는 경향이 일어났다. 여기에 또한 새로운 힘, 즉 역사 생활에서의 제4의 힘으로서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18세기 중엽 이래의 산업화를 통해 등장한 經濟力이다. 이 힘은 역사 생활에서 항상 작용해 오고 있었지만, 하나의 주도적 힘으로서 인정되지는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그 영향력이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막강해졌다. 그리하여 대학과 그 학문이 일찌기 중세 시기에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듯이 이제 19세기 이후로는 역사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특히 정치 권력에는 극수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위해 또한 경제력에는 산업 기술 자본주의를

위한 기술적 지식 공급으로써 기여하는 비주도적·테크노크라트적인 역할로 전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력이란, 그것이 제4의 강력한 힘으로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작용해 왔던 것으로 본다면, 역사 생활에서의 하나의 形力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지도적인 힘으로 될 수는 없는 세력이다. 이 힘의 작용력이 의식되면 될수록 그것은 다른 힘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힘들의 독자적이며 등등한 지도력을 무력화시켜 버린다. 그러므로 이 힘은 제어되고 조정되지 않는 한 지극히 부정적이고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 진행의 이러한 형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분명하게 표명했던 인물은 20세기초의 호이징가(Huizinga)였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중엽에도 그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역사의 모습에 대한 의식이 부르크하르트(Burckhardt)에게서 표명된 바 있다. 의미 있는 것은 그가 인류 역사를 19세기 중엽에 ‘세계사적 성찰’의 견지에서 관찰하는 데 응용한 인식 형태가 바로 중세의 現世의 三位一體思想이 새로운 형태로 계승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름 아니라 그는 세계사의 전개에서는 국가, 종교, 문화의 3개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힘들이 상호 보완 또는 제약하면서 역사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폭력과 힘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는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욕구에서 나온 것이며, 문화는 물질적 축진을 위해 또 정신적·도덕적 생활의 표현으로서 나온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다. 국가는 법의 수호자이지만, 폭력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적 개인을 통해 긍정적인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는 보편적 강제성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수정하며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가 하면 종교와 국가를 수정하는 것은 文化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크하르트에게는 국가, 종교, 문화의 3개의 힘들은 역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같이 필요한 요소들이며, 따라서 다같이 중요했다. 그들 중의 어느 하나도 일방적으로 우세해져서도 억압당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3

개의 힘들이 균형을 이룰 때 역사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에서는 국가 및 종교 외에 새로운 표현으로 제기된 文化라는 학문과 예술과 기술, 그리고 물질적 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또한 정신적·도덕적 생활의 표현으로서 나온 요소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는 대학과 그 학문의 결과와 가치가 중심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실제로 한 민족 생활에서의 그 文化의 주도적 담당자는 바로 大學과 그 學問이다. 그러므로 그의 새로운 三位一體思想에서의 文化란 대학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확대된 개념의 文化라는 요소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 되겠다. 다름 아니라 그는 근세로부터 종교와 문화를 압박하면서 승승장구해 온 국가가 자기 당대에 와서는 극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 팽창을 지향하고 사회 생활의 다른 영역을 통제해 가는 현상을 보았고, 여기에서 국가의 본질인 권력이 악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자기 당대의 물질주의적 경향 속에서 文化는 창조적인 기능보다는 속물화되어 버린 시민 계급적 대중의 비창조적인 향유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역사의 진행 속에서는 항상 病理的 현상이 있음을 보았고, 그러한 현상은 3개의 힘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종교와 문화가 각각 자신들의 독자성에 따라서만 발전해 나갈 것이 아니라 각각은 상호 견제하며 제약까지도 해야만 하는 사명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세계사는 그렇게 전개되지는 못했고 미증유의 비극을 자초했었다. 그 비극이 시작될 무렵에 토인비(Toynbee)는 ‘普遍教會(universalchurch)’가 역사 진행의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이미 시작된 비극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한 역사가의 매혹은, 소극적인 진단이었다. 의미 있는 것은 토인비의 사상도 분명히 現世의인 삼위일체 사상의 전통 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점이다.

3개의 힘들은 세계사 진행의 내면에서는 함께 작용하고 있지만, 외면적으로는 동등하게 독자성을 지키면서 발전해 오지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부세적이었던 것은 정치였다. 그러나 종교도 때로는 해당 시대인들의 의식 수준과 그 경향성에 따라서 자연히, 때로는 자체의 광신적·맹목적인 힘을 규합하여 정치 권력을 지배하기도 했었다. 반면에 문화가 정치 권력이나 종교를 지배했던 일은 찾아 보기 힘들다. 3개의 힘들이 현실적으로 비교적 조화를 잘 이루었던 시대가 가끔은 있었다. 볼테르(Voltaire)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대의 하나로 지적했던 르네상스 시대나 페리클레스(Pericles) 시대는 그러한 시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들도 역시 정치의, 또는 정치와 종교의 주도하에 문화의 힘이 함께 작용했을 뿐이었으므로 3개의 힘들이 현실적으로 균등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화가 존중되었을 때 그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러한 시기에는 문화가 비록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당한 작용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보완 또는 수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르크 하르트 이전에도 이미 18세기에 강력히 제기된 바 있다. 가장 선두의 계몽 사상가로서 볼테르는 최초의 文化史家답게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서는 첫째로 훌륭한 법과 제도들, 둘째로 학문적 업적들, 셋째로 예술적 기념물들이라고 보면서, 특히 학문과 예술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학문과 예술의 번영을 염려하지 않는 국가나 군주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문화가 창조적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부는 문화의 가장 조직적·체계적인 한 담당자인 대학에 달려 있다. 실로 대학은 해당 민족과 국가의 정치 권력 및 종교 신조와 함께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 독자성과 함께 권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은 중세 시대에서는 물론이려니

와 근세 이후에도 보호를 받으면서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의 주도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현실적으로는 항상 예측된 위치에서 그러한 보호와 육성을 받아 왔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은 대학으로 하여금 진리 탐구와 삼위 일체 사상이 추구하는 현실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변질까지 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다른 2개의 힘, 특히 정치 권력의 역할에 비해, 또한 그 힘에 의해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국가 형태가 절대주의 체제를 갖추어 나갔을 때 국가는 관료주의 체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들을 필요로 했다. 이에 대학에서는 官僚學·行政學 등이 요구되었던가 하면,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經濟學을 위시한 실용 학문들이 또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말까지는 대학은 여러 가지 專門學을 개설해 나갔고, 일종의 직업 학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18세기 계몽 사상이 또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계몽 사상의 實用主義는 대학으로 하여금 현실의 실체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專門 單科大學들의 설립이 촉진되기도 했던 것이다. 18세기말까지의 대학과 그 학문 연구 경향이 보여준 그러한 현상들을 우선 요약해 본다면, 대학은 근세로부터 정치 권력에 예측되어 가면서 봉사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합리주의에 의해 결정적으로 약화된 종교와 교회로부터는 해방되어 갔으나, 그 대신에 제4의 힘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경제력과 부르조아지 생활에 봉사하는 과제를 새로이 부과받게 됨으로써 결국 세계사의 진행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한 민족, 한 국가의 역사 생활 속에서도 다른 힘들과 동등하게 작용하는, 특히 그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로부터는 더욱더 소외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진행의 형태 변화 속에서 자신의 마땅한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9 세기에 근세 대학의 모범으로 칭송되기도 하는 베를린대학이 창설될 때에는 18세기까지의 대학들이 빠져 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개혁 사상이 제기되었다. 그 문제점들이란 대학이 18세기말까지도 중세적인, 즉 신학 교리를 연구하고 그 지식을 단순히 전수하는 가운데 갖추어졌었던 현학적이고 폐쇄적이었던 형식과 제도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모습과 근세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실용주의적·전문화적 경향에 빠져 있는 모습이였다. 따라서 베를린대학 창설에 참여했던 피히테(Fichte), 슈라이엘마하(Schleiermacher), 훔볼트(Humboldt) 등이 제기했던 개혁 사상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그들이 대학은 학문의 정신과 재능을 결합시켜야 하며, 일방 통행적인 강의 방법을 지양하고 지식을 구사하는 기법을 터득하게 하는 교육 기관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발견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다함께 무한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결국 대학을 연구 기관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이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개별 학문에 대한 재능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인식하는 체계적인 철학적 정신을 강조했고, 학문의 실용주의적 효용성이나 사회적 요구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이제 대학은 순수 연구와 교수 활동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세웠고,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를 운영의 원칙으로 세우게 되었다.

베를린대학의 이념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많은 대학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전체를 개괄해 보면, 독일 대학들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오한 아카데미즘을 이룩했는가 하면,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했다. 즉, 대학과 학문, 대학인들과 지식인들은 당세기에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로의 길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다함께 걸어갔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의 모두 당시 경향성의 동반자들(Mitfolger)이었다. 그 반면에 자신

이 속해 있는 민족사 또는 세계사의 진행과 그 방향에 대해 조정자적 견해를 제시했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프랑스의 미슐레(Michelet)나 괴팅겐(Göttingen)의 7교수들처럼 해직되거나 아웃 사이더로서 소외당했다. 그러한 견해나 역할의 당위성을 스스로 터득하는 일이 이른바 순수한 아카데미즘에 또는 기존 체제의 형식과 방향을 긍정하는 참여에만 익숙해 있었던 대학인들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부르크하르트처럼 역사 진행 속에서 항상 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할 줄 알았던 역사가들에게서나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의 교수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책임은 베를린대학의 이념에로까지 소급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란 이미 중세 대학이 모호하게 추구하면서도 고수해 왔던 바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하면 학문을 실용주의적 효용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체적인 식 능력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개혁 이념도 이른바 순수 아카데미즘을 세울 수는 있었어도 그것이 무엇에, 누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결여했으며, 결국에는 중세에 이미 대두되어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었던 현세적 삼위 일체 사상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 교수들은 1914년에는 프러시아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제1의, 그리고 1918년에는 독일의 굴욕에 대해 항의하는 제2의 선언을 한 바도 있었거니와 1933년에는 세기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를 위시한 1,000명의 교수들이 나치 국가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제3의 선언으로 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양차의 비극을 치른 후, 블로이엘(H.P. Bleuel)은 "독일은 아카데미학 작업을 수행하는 데 숙달된 전문 지식인과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자주적·비판적인 연구 활동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의 대학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유능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능을 지닌 인간,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주적·비판적이며 진실을 지향하는 사고와 이성적인 행동 능력을 육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사실 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第三帝國에 대한 대

학인들의 충성과 맹종, 학생들의 열광, 그리고 교수들의 소극적 태도 등이 그 증거들이다. 그리고 나치 시대에 2,000~3,000 명의 교수들이 혹은 편적당하고 혹은 이민했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해도 역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는가?

4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는 바는 대학은 현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지극히 모순적이며, 이론적·현실적으로 背理의 주장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학과 대학인, 그리고 그 학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종교와 정치, 그리고 최근세 시기부터는 경제에도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 참여의 영역과 성격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항상 기존 체제를 긍정하는 참여, 전문 지식과 기술로써 실용주의적으로, 그러므로 지극히 道具的인 참여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적 참여와 보편사가 지향하는 바에 입각한, 그러므로 사회 윤리적·역사 조정적 참여가 있어 왔다. 그런데 전자의 긍정적 참여에 대해서는 대학과 그 학문을 고용해 온 정치적·경제적 지배 집단이나 고용당해 온 대학과 대학인 자신들도 이를 대학의 현실 참여라고 보지 않고 민족의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수행으로 미화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반면에 후자의 비판적 참여는 주로 지배 집단에 의해 매도당해 왔다. 즉, 그것은 대학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 마치 사회의 금기 영역으로 대학이 스스로 나아가는 행위로 지탄당했고, 이것만이 유독히 ‘참여’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守舊의·부정적 의미의 보수적, 요컨대 기득권 수호적인 발상인가 함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대학은 오직 진리 탐구에만 열중해야 한다” 또는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서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내일의 주인공들을 양성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등등의 정의들은 이른바 ‘참여’가 위

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만 해석되고 있는 한, 지배 논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서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대학은 긍정적·비판적인 모든 종류의 참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은 대학 자체가 사회적·민족적 공동체의 한 구성 기관이므로 참여는 하나의 본래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학문이 규명하면서 정립시켜 나가고자 하는 진리란 현실과 유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잘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 체제와 이념에 긍정하는 참여에 대해서야말로 대학은 진리 탐구에만 열중해야 한다는 정의가 명제로서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윤리적·역사 조정적인 비판적 참여야말로 現世의 三位一體 사상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 전자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겠다.

이 후자의 참여조차도 정치와 종교가 본래의 긍정적인 역할을 최소한으로나마 수행하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과 학문, 문화의 힘은 제3의 위치에서 보완적인 역할만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산업 기술 자본 사회가 천박하게 일방적으로만 요구하는 기술 전문 교육에만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들을 단순히 특정 분야에만 통달하는 인력으로 교육한다면, 이들은 곧 도구들로 전락하고 말아 버린다. 이들은 전문인이되, 사회의 전체적 진행과 방향에서 자신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진행과 방향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학은 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은 사회의 어떤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 기관들이나 여타의 집단들은 사회 발전을 위한 부분적인 지식과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할 수 있지만, 대학은 우주와 자연 속의 법칙들과 인간 생활의 근본 원리들을 규명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정립해 보는 기관이므로 모든 사회 운동과 그 진행 방향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책임을 대학은 정치나 종교가 무리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제 4의 힘으로서의 경제력과 유착하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며 그 보상으로 정권의 시너가 되면서 사회 윤리를 몰락시키고 있을 때라면, 대학·문화의 힘은 이를 견제하고 제약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견제와 제약을 행사하지 못하는 보완은 중속적인 봉사에 불과하다. 이 작업은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과제이다. 대학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력의 난무와 횡포 속에서도 자신의 소극적 과제인 학문 연구에만 몰두함으로써 그 학문이 실용주의적·도구적인 것으로 되도록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소극적 과제 자체를 변질시키는 행위이다. 대학이 이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때 자신의 소극적 과제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는 상보 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학이 이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역사의 작용하는 힘으로서의 역할과 역사 조정의 기능을 방기하는 일이다.

모든 불행했던 역사 시기에서 보면, 적어도 근세의 개막 후 과학 혁명과 합리주의가 일어난 후로는 그 불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이거나 종교인들에게보다는 지식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 법칙과 사회 운동에서의 법칙적 질서를 가장 깊이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보편적인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보편사를 위한 기관이며, 대학인도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이어야만 한다. 그들은 보편사의 이념에 입각하여 진단한다면, 때로는 민족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처방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지가 학문 후진적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상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 사회와 민족의 전체적인 진행과 방향에 대해서조차도 방관적이고, 이른바 아카데미즘에만 빠진다는 것은 배반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하이텍거조차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정치 후진국에서 흔히 정치 권력은 대학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인경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힘들에 대한 견제력과 제약력을 분쇄당한 권위일 때, 이 권위는 자체 내에서의 자의적인 권위로 타락한다. 우리의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했던가 말이다. 요컨대 정치 권력이 대학에 그러한 종류의 권위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침묵하든지, 자체 내의 모순 속에 빠져 있으라는 정책이다. 또한 대학인들 스스로가 소극적 과제만을 고집하면서 적극적 과제를 매도하는 태도는 도피이거나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고자 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대학과 대학인, 그리고 그 학문은 항상 현세적 삼위 일체 사상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 윤리적·역사 조정적 의미의 비판을 왕성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